
지속가능한 천안다운 원도심 재생 방안 모색

의 정 토 론 회 개 최 결 과

2016. 11.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목 차

I . 총평	1
II .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2인)	2
② 지정토론(5인)	3
③ 청중토론(3건)	5
III . 토론회 결론 및 성과	7
IV .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7

지속가능한 천안다운 원도심 재생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 쇠퇴하고 있는 천안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천안다운 원도심 재생 방안과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 행 사 개 요 》

- 일시·장소 : '16. 11. 11.(금), 14:00~16:30 / 천안시 동남구청 회의실
- 신 청 : 김동욱 의원(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주 관 : 충청남도의회 · 충남연구원
- 참 석 : 80여명(도민, 상인, 관련 공무원 등)
- 주 제 : 지속가능한 천안다운 원도심 재생방안 모색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상인, 관련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천안다운 원도심 재생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로 천안 원도심 재생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음.
- 참가자 대부분은 천안만의 콘텐츠를 발굴·기획하여 상업적·소비적 도시의 이미지를 버리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도시의 정체성, 삶의 질, 커뮤니티 복원차원에서 사람을 유치하는 정책이 필요함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으며,
 - 지역주민 및 상인, 관계 공무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예산소모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의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Ⅱ 주요 토론내용

① 주제발표 (2인)

<성남훈 사진작가>

-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등 건축물 재생을 위한 방안보다는 지역민들에게는 추억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지역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사진의 예술성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사진의 중요성을 역설함.
- 천안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역사적 배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을 흡수할 수 있는 예술적 거점을 마련, 일반인들의 사진과 영상매체를 통해서 SNS에 먼저 화제의 장소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익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진가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매체에 노출시키고, 이를 통해 사진, 영상, 음악이 결합된 페스티벌 등을 개최, 일반인과 예술가들이 상호 교류하고 공존하는 벨트를 형성하여야 함.

<임준홍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원도심 내의 빈공간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기획을 해야 하며, 현재 원도심 내의 건물 3채 중 1채가 공실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 문화예술의 시민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약적인 다문화 공간을 형성하여 전문가들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연구가 필요함.
- 현재 천안 원도심은 상업적 공간이 주를 이뤄 정체성이 없고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매력적 공간이 없으므로 빈공간을 활용하여 구역별로 테마를 정해 장소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단체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함.

- 원도심 재생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 담을 것이 청년, 문화, 다문화로 꼽혔는데 현재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이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행·재정적 지원보다 지역민의 노력이므로, 지역민과 상인 간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

[2] 지정토론 (5인)

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 원도심 쇠락의 문제는 매우 복잡적이므로, 단기적인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원주민 축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목표가 불분명한 사업, 예산소모성 사업,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사업에 공공기관이 주체로 나서는 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원도심을 채울 콘텐츠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다양한 종류의 요구를 수렴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물리적 공간의 개선이 아닌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② 전성환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 원도심의 문제는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20년간 도시계획의 실패가 핵심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컨트롤 타워 부재로 사업의 지향점이 모호함. 원도심은 도시의 정체성, 삶의 질, 커뮤니티 복원에서 바라 봐야 하며, 인구유입 전략이 최우선 돼야 함.
- 홍익대, 상명대는 자교출신의 예술가들을 자기지역으로 유인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예술인들의 공간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과 방문객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을 제공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수익창출로 이어져 현재의 홍대상권 발전을 이끄는 잠재력을 터뜨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

③ 김 현 (단국대학교 교수)

- 천안역 주변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꾸준한 노력과 예산이 투입된 결과, 활성화 기틀이 마련돼 있음에도 빈점포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는 주요 교통결점으로부터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방문자들의 목적시설 부족, 퇴폐업소와 빈 점포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함의 인식이 존재함.
- 천안에 분포하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 창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예시로 일정기간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착한 임대인' 정책과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언급함.

④ 김영환 (청주대학교 교수)

- 원도심의 재생은 단기적인 사업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대학과의 연계, 지역기업(삼성SDI, 대형교회 등) 등의 나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추후에 도시재생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화 사업 및 사업 성과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을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관심 유도를 도모해야함.
- 천안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을 중심으로 구역별, 공간별 특화의 필요성과 공영주차장 및 공원·녹지 확충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보, 기존의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끌어내 사회통합도 도모해야 함.

⑤ 박상일 (천안시 명동대흥로 상인회 사무국장)

- 젊은층 끌어들이기, 문화콘텐츠 끌어오기, 저(미)이용 토지활용 등으로 편중되는 것은 또다른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내실있고 참신한 아이টে을 적극 개발·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이 필요함.

- 민관협치의 시스템을 강화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개발하여 현실적인 문화와 상업적 예술활동, 다문화 등을 통한 특성화 전략을 통해 인구유입을 도모해야 함.

③ 청중토론(질의답변)

- 공간 활용, 청년정책, 문화시설의 증대와 함께 지역 상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요구들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였으면 좋겠으며, 추후에 있을 의정토론회는 재생방안의 가치와 대안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상인과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주제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음.

[최광운 오빠네게스트하우스]

⇒ 금번 토론회는 각계각층에서 제시하는 대안과 가치를 수렴하여 추후에 있을 토론회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를 연구하여 내실있는 원도심 재생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 임. 또한 원도심 재생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와 행정의 서로의 장점을 매개로 협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

- 지역상인들이 느끼는 원도심 쇠락의 원인 중 하나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문적 연구외에도 지역민과 지역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상인]

⇒ 다양한 방안과 사례를 통하여 천안만의 정체성을 찾는 데 노력하기 위해 기존의 도시자원을 토대로 연구중이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모아 역동적 원도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

- 원도심만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정체성을 찾아야 함. 또한 방문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무료공연을 진행하는 것은 공역기획자로부터 천안 원도심을 기피하는 장소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임병덕 감독]

⇒ 천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잘 살리기 위해 외국의 사례등을 통하여 이를 통해 천안 원도심이 가지고 있는 점점을 잘 살려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음.

[답변: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

4 종합(좌장 :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

- 금번 의정토론회는 쇠퇴하고 있는 천안 원도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자리이며, 다양한 가치와 의견을 수렴하여 천안이 가지고 품고 있는 다양한 문화·역사적 배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을 끌어와 주민의 자력재생 유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민과 관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III 토론회 결론 및 성과

<도출과제>

1. 천안 원도심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2. 천안만의 지속가능한 가치있는 콘텐츠 개발
 3. 지역주민, 상인과 천안시청(관) 간의 협업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4. 사진으로 매개체로 하는 다양한 홍보방안 활용
-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성 과>

- 지역주민, 상인,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속가능한 원도심 재생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의견 제시
-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천안시만의 문화예술 공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건축도시과)
 -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천안시(도시재생과)

붙 임 : 1. 토론회 사진
2. 언론보도 현황
3. 토론자료(따로 붙임)